

[홈](#) > [뉴스](#) > [뉴스](#) > [학술·연구](#)

서울대 日연구소-친선협, '민간교류' 주제 심포지엄

2013년 09월 25일 (수) 11:06:26

이연희 기자  bluepress@unn.net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한일친선협회와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협회 창립 36주년을 맞아 27일 오전 11시 국제대학원 신축관에서 ‘풀뿌리 교류의 발자취와 향후 발전방향’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한일 양국 관계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로 소원해짐에 따라 민간 풀뿌리 교류를 기반 삼아 건전한 소통과 이해를 이어간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현장에서 다년간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참석해 한일 양국 간 교류에 관한 비판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대 일본연구소 측은 “심포지엄을 통해 얻어진 성과를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은 한일 양국 간 상호이해와 교류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은 단행본으로 출판된다.

© 한국대학신문(<http://news.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